

<서평>

## *Geldgeschichten der Bibel*

(D. Bau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 *111 Bibeltexte, die man kennen muss*

(A. Malessa, Stuttgart: emons;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1)

김정훈\*

### 1. 들어가는 말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적어도 2천여 년, 어쩌면 3천여 년 전부터 글로 기록되었을 이 오래된 책<sup>1)</sup>을 따라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더구나 성경은 비신자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과연 성경은, 특히 한국의 토양에서 성경은 비신자들에게 과연 접근하기에 수월한가? 그리고 신학과 교회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가? 사실 성경을 읽는 방법에 관해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그렇다. 과연 그 책들이 이토록 오래된 책과 현대의 독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어주는지는 따져 물어보아야 할 문제다. 또한, 그런 책을 쓰는 이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의식의 관점에서 21세기 독일의 현실에 발을 딛고 나온 두 책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ihoze@hotmail.com](mailto:ihoze@hotmail.com).

1) 구약성경 본문의 형성과 그 역사에 대해서는, 참조,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김정훈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특히 3-22. 이 책에 대한 서평으로는, 김정훈, “<서평>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Alexander Achilles Fisch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성경원문연구」 39 (2016), 448-464.

은 흥미를 끈다. 두 책 다 독일성서공회(Deutsche Bibelgesellschaft)가 주도하여 발간하였다. 그리고 두 책 다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하고 자본 지향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현대인으로서 성경에 관심을 두고 첫걸음을 내딛으려 하는 비신앙인을 동시에 독자층으로 겨냥한다. 우리는 이 두 책을 훑어보면서, 다음의 앞서 한 질문에 이 두 책이 어떻게 답해 가는지 눈여겨보려 한다.

## 2. *Geldgeschichten der Bibel* (D. Bau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인류가 단순 물물교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양한 가치를 사들이는 수단으로 “돈”의 매개체를 도입한 이래로, 돈은 인간의 거의 모든 삶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자본 지향의 현대 사회에서는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돈이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며,<sup>2)</sup>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독일에서 성경 반포의 역할을 주도하는 독일성서공회가 “성경의 돈 이야기”(Geldgeschichten der Bibel)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펴낸 것은 그 기획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 2.1. 저자: 디트리히 바우어(Dietrich Bauer)

성경의 돈 이야기를 누가 다룰 수 있을까?<sup>3)</sup>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성경과 현대 사이의 시대와 장소에서 오는 거리를 쉽사리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돈의 전문가,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통찰이 없다면, 전문적인 돈 이야기를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을 쓴 디트리히 바우어(Dietrich Bauer)는 1940년에 태어나서 원래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경제학·재정학(Wirtschafts- und Finanzwissenschaften)을 전공한 경제 전문가로서 뷔르

2) 이런 뜻에서 이 책은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Geld regiert die Welt)라는 역설적인 속담으로 시작한다. 참조, D. Bauer, *Geldgeschichten der Bibel*, 11.

3) 이와 관련해서 몇몇 기존 문헌을 들자면 다음과 같다. W. Brueggermann, *Money and Possessions: Resources for the Use of Scripture in the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J. Dierken, *Gott und Geld: Ähnlichkeit um Widerstreit* (Tübingen: Mohr Siebeck, 2017); A. Nickel-Schwäbisch, *Gott und Mammon: Biblische Perspektiven zum Umgang mit Geld-In Go(l)d we trust*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2019).

템베르크, 카셀 등의 독일 개신교회 주정부 교단 최고 관리국에서 재정·종교세 관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독일성서공회의 운영 위원도 거쳤으며, 2014년에 별세했다.<sup>4)</sup> 그러니 그는 사실상 경제 전문가로서 교회 현장의 경제와 재정 실무를 오래도록 담당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신학의 관점보다는 현장의 관점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성경에 접근하여 이 책을 저술했다고 말할 수 있다.

## 2.2. 책의 구성과 내용

### 2.2.1. 책의 구성

이 책에서도 다루듯,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과 연관 짓는다. 더구나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말씀과 비유들은 돈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만큼 돈은 인간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바우어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돈과 관련한 본문들을 골라서, 주제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가 성경의 돈 이야기와 관련해서 분류한 주제들은, “부유함과 번영”, “임금과 급여”,<sup>5)</sup> “유산상속”, “저축·투자·노후대비”, “세금·관세·납부금”, “기부와 헌금”, “파산과 부채”, “돈의 유혹”, “부유함은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가?”, “모든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등 모두 10가지이다. 그는 이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들, 특히 대개 직관적으로 읽고 이해하기 수월한 이야기 본문들을 중심으로 골라서 좀 더 구체적인 소재목을 달고 본문과 관련한 돈, 또는 재정 관련 주제를 짧게 설명한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아무 설명 없이 그대로 제공한다. 이리하여 바우어가 짧게 설명한 주제와 관련해서 독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2.2.2. 책의 내용

무엇보다 바우어가 여기서 제시하는 주제들은 자본 지향적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라면, 모든 이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신앙인뿐만 아니라 비신앙인에게도 저절로 책으로 손이 갈 정도로 흥미를 일으킨다. 이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

4) 참조, [https://de.wikipedia.org/wiki/Dietrich\\_Bauer](https://de.wikipedia.org/wiki/Dietrich_Bauer).

5) 여기서 쓰인 독일어는 제각각 “Lohn”과 “Gehalt”이다. 둘 다 일정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구분하자면 “Lohn”은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면, “Gehalt”는 고정된 금액의 급여를 뜻한다.

을 몇몇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서, 바우어가 성경의 돈 이야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따라가 보자.

바우어는 첫 주제 “부유함과 번영”(Reichtum und Wohlstand)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면서, 고대사회에서부터 성경은 부유함을 하나님의 복 주심과 연관 짓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sup>6)</sup> 그러나 부유함을 거부하고 금욕주의에 들어가는 것만이 지고선은 아님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부유함이 가시적인 재화나 세력만은 아님도 함께 밝히는데, 이를 위해서 바우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창 15:1-6)과 솔로몬의 이야기(왕상 3:2-14), 곧 그가 부유함이나 권력과 같은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까지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어 보여준다. 이로써 성경이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돈, 부유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임금과 급여”(Lohn und Gehalt)라는 주제에서 바우어는 특히 예수의 포도원 일꾼 비유(마 20:1-16)에서 현대 사회에 중요한 이슈인 임금과 급여의 공정성에 대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을 향한 역설적인 공정성을 강조한다.<sup>7)</sup> 더불어 천막을 만들며 사역했던 바울의 이야기(고전 9:1-18)에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단에서도 침예한 이른바 “자비량 목회”(목사 이중직)의 문제도 꺼내서 기독교회의 미래를 조심스레 내다본다.

한국 개신교회의 성경과 달리 독일의 <루터성경>(Luther Bibel, 2017)은 헬레니즘 시대의 외경도 포함하는데, 바우어는 외경의 본문도 더러 쓴다. 가령, 그는 “유산상속”(Erbschaften)의 주제에서 “때 이른 증여 대신에 유산으로 상속하기”(Vererben statt frühzeitiger Schenkung)라는 소제목으로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유산을 상속하여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말라는 집회서의 전통적 교훈을 사용한다(집회 33:20-24).<sup>8)</sup> 하지만 이어서 잘 알려진 예수의 이른바 “잃어버린 아들” 비유(눅 15:11-32)를 꺼내 든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훈을 깨뜨리며, 때 이른 유산 증여로 빚어질 “터무니없이 잘못된 행동으

6) D. Bauer, *Geldgeschichten der Bibel*, 18.

7) 참조, *Ibid.*, 39-40.

8) 가톨릭 『성경』 번역: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네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네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네가 아직 살아 숨 쉬는 한 아무와도 네 자리를 바꾸지 마라. 네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네게 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네 명예에 흠을 내지 마라. 네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에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sup>9)</sup>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한다.

“저축·투자·노후대비”(Sparen, Kapitalanlage, Zukunftsvorsorge)의 주제는 사실상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바우어가 질문하듯이,<sup>10)</sup> 우리는 어찌면 매일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외환을 사 두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할지를 고민한다. 그러면서도 신앙인으로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맞는지도 더불어 고민한다. 바우어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미래를 위한 대비(이집트에서 총리로 있던 요셉, 창 41장)와 투자의 개념(달란트 비유, 마 25:14-30)을 성경에서 찾은 뒤에 그런 일상의 경험에서 비롯한 재물 쌓기의 상식을 뒤집는 예수의 말씀을 든다. 먼저 누가복음 12:13-21의 부자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도록 한 말씀을 드는데(막 6:6하반-13),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유한하고 가시적인 가치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며, 그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관점은 이어지는 “세금·관세·공공요금”(Steuern, Zölle, Abgaben) 주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은 축적의 개념인 앞선 주제와 달리 지출의 개념으로 고민되기는 마찬가지다. 바우어는 여기서 예수의 베들레헴 출생 자체가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납세의 의무 테두리 안에서 일어났음을 일깨우며(눅 2:1-7), 바리새인들과 벌였던 예수의 세금 논쟁(막 12:13-17)과 성전세 납부(마 17:24-27), 바울의 세금관(롬 13:1-7) 등을 통해 납세 의무를 긍정한다. 그러나 세리였던 삭개오의 회심에 집중하면서(눅 19:1-10), 하나님 나라의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출로 나아갈 것을 던지시 말해준다.

이어서 그러한 적극적인 지출의 보기로 “기부와 헌금”(Spenden und Opfer) 주제로 이어간다. 종교세가 일상화된 독일의 배경과 자발적 헌금 제도를 따르는 우리나라 교회의 배경이 달라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독자들에게 같은 비중으로 와닿지는 않는다. 그래서, 구약 전통에서 세금의 일종이었던 십일조 제도(창 28:10-22; 대하 31:1-12)와 기타 헌금(마 6:1-4; 막 11:15-18; 고전 8-9장)과 관련한 바우어의 관찰은 한국 교회의 배경에서 재논의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막

9) D. Bauer, *Geldgeschichten der Bibel*, 59.

10) *Ibid.*, 62.

12:41-44)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초대교회의 이야기(행 4:32-37)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적극적 지출 원리를 강조한 면은 다를 바 없다.

이어서 다루는 “파산과 부채”(Insolvenz und Schulden)의 문제는 성경 시대뿐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이다. 예상하듯, 바우어는 구약성경에서 안식년의 채무 면제법(신 15:1-11)이나 희년의 채무노예 해방법(레 25:35-55) 등을 다룬다. 더불어 채무자의 관점을 배려하는 보기들을 여럿 더 들어서(왕하 4:1-7; 집회 29:1-20; 눅 16:1-9; 마 18:23-35), 성경은 자본 지향적 채무 관계의 해소를 지향함을 드러낸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돈”을 삶의 목표로 삼는 “돈의 유혹”(Vom Geld verführt)에 빠지기에 십상이다. 바우어가 말하듯,<sup>11)</sup> 돈에만 눈이 먼 사람은 결국 돈으로 매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비리를 서슴지 않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을 배반하기까지 한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는 동안에 자신들이 가진 귀중품으로 신까지 대신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부터 시작해서(출 32장), 한 달 품삯밖에 되지 않는 은 30에 예수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이도록 내어 준 가룟 유다(마 26:1-30, 36-57, 59-68; 27:1-10) 등 수많은 사람이 빠져들었다. 그들의 한결같은 결말은 죽음이었다.

그러니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부유함은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Durch Reichtum voll und ganz versichert?). 바우어가 제대로 보기를 들 듯 이<sup>12)</sup> 전도서의 저자는 이런 까닭으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 5:10)라고 경계한다. 바우어가 이 대목에서 결론으로 내리고자 하는 말은 “돈”에 대한 가치 전도(顛倒)의 선언인 듯하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처지가 역전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끌어온다(눅 6:20-26).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현실의 “돈”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sup>13)</sup>

결국 바우어가 결론 삼아 하는 주장은 성경은 우리 일상에 필수 불가결한 돈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지만, 그 전통적인 관점을 재고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돈보다 더 중요한 것”(Wichtiger als alles Geld)은 살아 계신

11) Ibid., 130.

12) Ibid., 158-159.

13) Ibid., 167.

하나님과 맺는 관계임을 가르쳐 준다고 역설한다.<sup>14)</sup>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유함은 평화, 기쁨, 희망, 충만, 그리고 영원한 삶 등의 소중한 자산을 품고 있다”<sup>15)</sup>는 바우어의 마지막 말은 귀 기울여 들음직하다.

### 2.3. 평가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그 가치를 입증한다. “성경의 돈 이야기”라는 말 한마디에서 벌써 독자들은 이 책을 집어 들고 싶은 욕구를 느끼며, 이 책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에게 성경에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통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저자는 경제 전문가로서, 특히 독일 교단의 재정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일해 온 경험이 있으므로, 성서학자들이 다소 사변적일 수 있는 주석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한 “돈 이야기”를 성경에서 풀어낼 수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이 책의 한계이기도 하다. 물론 바우어가 “돈”과 관련한 성경 본문을 고르고, 분류하여, 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소재목을 붙이고, 현실적인 도입구를 서술한 것은 그의 고유한 능력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본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서술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는 그의 본문 관련 해설이 너무 간략하다. 더욱이 그가 주장한 결론은 사실 다소 진부해 보이기까지 한다. 더 깊은 신학적 성찰을 녹이지 못한 것은 저자 자체의 한계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평신도, 또는 비신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돈”을 주제로 성경 본문에 들어간 그의 “돈 이야기” 여정은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다.

### 3. *111 Bibeltexte, die man kennen muss* (A. Malessa, Stuttgart: emons;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1)

우리나라에서 성경의 본문,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책을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읽는 모습, 또는 캠핑 가서 느긋하게 의자에 기댄 채 쉬는 사람이 읽는 모습을 얼마나 실감 나게 상상할 수 있을까? 독일성서공회와 에몬스(emons) 출판사가 협력하여 출판한 이 책은 바로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

14) Ibid., 174.

15) Ibid., 176.

### 3.1. 이 책의 시리즈와 저자

#### 3.1.1. “111” 시리즈

왜 굳이 “111”인가? 이 책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드는 첫 질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출판사의 시리즈 광고를 보면, 이내 그 답이 나온다.<sup>16)</sup> 이 책은 독일 “에몬스”(emons) 출판사에서 펴내는 “111 장소”(111 Orte) 시리즈의 한 권으로 출간되었다.

사실 이 책이 들어 있는 시리즈는 에몬스 출판사가 2008년부터 펴내기 시작한 여행안내서 “가 보아야 할 장소 111”(111 Orte, die man gesehen haben muss)이다.<sup>17)</sup> 이 시리즈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곳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들을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으로 펴냈다. 하지만, 출판사는 시리즈를 여행안내서에 그치지 않고, 와인, 어린이, 캠핑지, 동물 등 여러 주제에서 “111”가지를 소개하는 책들도 포함해서 확대하였다. 2023년 현재 이 시리즈는 660권 정도나 출간되었다.<sup>18)</sup> 그 가운데서 이 책은 “알아두어야 할 성경 본문 111”(111 Bibeltexte, die man kennen muss)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성서공회에서 집필 과정을 주도하고, 에몬스 출판사에서 “111 Orte” 시리즈에 포함하여 출간하는 협업 형태로 나왔다. 사실상 독일성서공회가 이 시리즈에 성경 관련 책을 출간한 것뿐 아니라, 에몬스 출판사가 기꺼이 이 책을 시리즈에 포함한 것, 두 출판사가 협업하여 책을 펴낸 것 모두 흥미로운 대목이다.

#### 3.1.2. 저자: 안드레아스 말레사(Andreas Malessa)

이 책의 저자 안드레아스 말레사(Andreas Malessa)는 독일 여러 방송사에서 일한 언론인이며, 저술가이고, 개신교 자유교회(Bund Evangelisch-Freikirchlicher Gemeinden)에 속한 목사이자 신학자이다.<sup>19)</sup> 이 책의 부제가 “성경이 정말 재미있을 수 있을까?”(Kann denn Bibel lustig sein?)인데, 이 말에서 이 책의 저술 목적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결코 신학자가 머리를 싸매고 쓴 신학서적이 아니다. 성경을 인생의 “여행안내서”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재미있게 읽도록 쓴 책이다.<sup>20)</sup> 그러나 재미있게 쓴다는 일이 결코 아무렇게나 쓴

16) 참조, A. Malessa, *111 Bibeltexte*, 232-236.

17) 참조, <https://emons-verlag.de/verlage/emons/>.

18) 참조, <https://emons-verlag.de/buecher/111-orte/>.

19) 참조, [https://de.wikipedia.org/wiki/Andreas\\_Malessa](https://de.wikipedia.org/wiki/Andreas_Malessa).

20) 이런 의도는 저자가 독일의 ERF 방송에서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참조, <https://video.lifechannel.ch/share?key=4707A625-9536-402E-948DD55502E2EE86>.



다는 뜻은 아니며, 더욱이 아무나 쓸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레사는 언론인으로서 정확하고 쉽고, 현대적인 언어 구사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성경을 허투루 읽고 해석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의 신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다.

### 3.2. 책의 구성과 내용

#### 3.2.1. 책의 구성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은 에몬스 출판사의 “111 장소” 시리즈에 따른다. 그래서 111개의 성경 본문이 정확히 2쪽씩 배정되어 있다. 이 책에 포함된 본문은 구약성경이 53개, 신약성경이 58개로 거의 비슷하지만, 신약 본문이 조금 더 많다.

111개 성경 본문 가운데 첫 이야기를 보기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sup>21)</sup>

#### <그림 1> 책의 구성

DIE SCHÖPFUNG DER WELT | AUS 1. MOSE/GENESIS 1-2

### 1. Aller Anfang ist ...

*Ein Wort schafft Wirklichkeit*

Und das soll man glauben? Mal ganz peu à peu: »Am Anfang« – da denken wir an einen chronologischen Beginn und fragen: »Wann und wie?« Durch den Urknall? Vor zig Milliarden Jahren? Als ein dimensionsloser Punkt reiner Energie in einer 10-hoch-minus-43stel Sekunde explodierte und sich die herumfliegenden Brocken nach Größe, Gravitation, Entfernung zur Sonne und Neigungswinkel exakt so positionierten, dass die chemischen Stoffe auf diesem Planeten ein gemäßigtes Klima und schließlich biologisches Leben ermöglichten? – Keine Ahnung. Das mag ja alles astrophysikalisch erklärbar sein, aber ein »Wunder« ist es irgendwie trotzdem, finde ich.

1. Mose/Genesis 1 ist eine Erzählung, die an den qualitativen Beginn denkt und fragt: »Wer und warum?« Der Text wurde aus dem Hebräischen ins Lateinische übersetzt, und da gibt es zwei Wörter für »Beginn«: »Initium«, das ist der zeitliche Anfang (»Ergreif doch mal die Initiative!«). Und »Principium«, das ist der ursächliche Anlass (»grundsätzlich, prinzipiell«). Welcher steht hier? »In principio creavit Deus ...!« Statt einer Dattierung mit Chronologie gibt's eine Botschaft: Gott ist der Grund, warum es die Welt gibt! Gottes Reden lässt Leben entstehen. Alles beginnt, wenn aus Geist Materie wird, aus einer Idee eine physische Wirklichkeit.

Na gut. Aber so, wie es da steht, kann's ja nicht gewesen sein, oder? Schöne Grüße von der Astronomie, der Geologie, den Evolutionsbiologen ...! – Als Naturforscher Charles Darwin 1859 sein Buch »Von der Entstehung der Arten« veröffentlichte, beendete er es mit den Worten: »Es liegt Größe in dieser Sicht des Lebens mit seinen Kräften, die anfangs durch den Schöpfer in einige wenige Formen hineingeatmet wurden, und, dass aus so einfachen Anfängen endlos schönste und wundervollste Formen entwickelt wurden und noch werden.«

»Durch den Schöpfer hineingeatmet« – das trifft es, finde ich.

Am Anfang schuf Gott Himmel und Erde. Und die Erde war wüst und leer, und Finsternis lag auf der Tiefe; und der Geist Gottes schwebte über dem Wasser. Und Gott sprach: »Es werde Licht!« Und es ward Licht. Und Gott sah, dass das Licht gut war. Da schied Gott das Licht von der Finsternis und nannte das Licht Tag und die Finsternis Nacht. Da ward aus Abend und Morgen der erste Tag.



21) 참조, A. Malessa, 111 Bibeltexte, 10-11.

개별 본문은 먼저 짝수 쪽(verso)에 해당 본문에 대한 제목과 본문 해설이 있다. 첫 줄에는 “세상의 창조, 창세기 1-2장”(Die Schöpfung der Welt aus 1. Mose/Genesis)처럼 단락의 제목을 둔다. 그리고 제목이 이어지는데, 제목은 두 단계이다. 주제목은 “한처음에는 …”(Aller Anfang ist …)처럼 본문에 대한 해설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문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소재목이 이어지는데, “한마디 말이 현실을 창조하다”(Ein Wort schafft Wirklichkeit)에서 봤듯이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항, 또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저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된다.

그리고 홀수 쪽(recto)에는 해당 본문 단락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뽑아서 보여준다(위의 보기에서는, 창 1:1-4). 여기서는 해당 구절이 단락의 어느 구절에서 왔는지 밝히지 않는다. 아마도 성경에 대해 혹시라도 있을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여길 수 있지만,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 더 읽으려는 사람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홀수 쪽에는 본문마다 각각 사진이나 그림이 한 장씩 제공된다. 이 사진이나 그림의 선정이 흥미롭다. 말레사는 모든 사진과 그림은 저작권이 없이 제공되는 것들(Creative Commons; CC)을 선택했다. 특히, 이미지 자료 대부분을 무료로 제공되는 웹사이트(pixabay.com)나 유료 이미지 제공 웹사이트(shutterstock.com)에서 내려받아 사용한다.<sup>22)</sup>

한 본문과 한 주제를 한 쪽씩 간략하고, 현실감 있게 해설하고, 본문과 더불어 사진이나 그림을 제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구성은 매우 인상적이다. 손쉽게 성경에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방법임이 틀림없으며, 바로 그 점에서 독일성서공회가 에몬스 출판사의 “111 장소” 시리즈에서 출간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 3.2.2. 책의 내용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책에서는 구약성경의 본문 53개와 신약성경의 본문 58개를 골라서 설명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참조, Ibid., 237-239의 사진 출처.

<표 1> 111 Bibeltexte의 본문 선정 현황

구약성경			신약성경		
소분류	개수	선택본문	소분류	개수	선택본문
오경	31	창 1-2; 2; 3; 4; 6; 8-9; 11; 12; 16; 18/21; 19; 22; 26-27; 28; 29; 33; 37; 39; 41; 45; 출 1; 2(×2); 3(×2); 12; 14; 20(×2); 32; 민 6	복음서 <sup>23)</sup>	42	마 1; 2(×2); 3; 5; 6(×2); 7/12; 20; 27; 28(×2); 막 1; 2; 6; 10(×2); 12; 14 (×4); 15(×3); 눅 1(×2); 2(×2); 4; 7; 8; 9; 15; 19; 24; 요 1; 2; 3; 4; 11; 20
역사서	10	수 1; 6; 룻 1; 삼상 16; 17; 삼하 11; 12; 왕상 3(×2); 10	사도행전	10	행 1; 2(×2); 4; 7-8; 8; 9; 10; 16; 17
시가서	6	욥 2; 40/42; 시 1; 8; 23; 139	서신서와 계시록	6	롬 1; 8; 고전 15; 갈 5; 계 3; 22
예언서	6	사 6; 43; 52-53; 55; 욘 1-2; 3-4			

위의 분석을 보면, 사실상 본문 선택이 다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성경의 경우 창세기가 가장 많은데, 그 반면에 시가서나 특히 예언서의 본문은 거의 선택되지 않았다. 신약성경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신서와 계시록은 상대적으로 거의 선택되지 않았다. 물론 성경의 모든 책이 독서하기에 같은 난이도가 아니며, 더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꽤 많은 선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sup>24)</sup> 교육적 효

23) 여기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본문을 배치한 책의 순서가 아니라 복음서 순서로 분석한다.

24) 이런 관점에서 독일에서 나온 BasisBibel의 서문에서는 성경 모든 책의 난이도를 네 단계로 나눠서 입문자들에게 성경의 독서와 공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BasisBibel의 난이도 구분에 대해서는, 참조, *BasisBibel: Die Kompakte. Altes und Neues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1), 9-12. 신약과 시편을 중심으로 한 BasisBibel의 특징에 대한 논의로는, 참조, 유은걸, “〈서평〉 *BasisBibel: Neues Testament und*

과와 접근 용이성을 고려해서 이야기체 본문과 널리 알려진 본문을 우선해서 선택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몇 번씩 다루는 본문 대신에 소외된 본문을 조금 더 선택하여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매 본문을 소개하는 주제목들과 소제목들은 간략하고, 본문의 특징을 드러내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려 저자가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왜냐하면, 제목에서 거리감을 느끼면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첫 관문부터 문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레사는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 흔히 오르내리는 말들을 성경 본문과 접목한 제목을 쓰곤 한다. 가령, 요셉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고, 그것을 거부하다 감옥에 갇힌 창세기 39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제목은 “해시태그 ‘미투’ 한번 반대로 – 짧은 경력의 금욕적 결말”(Hashtag “MeToo” mal andersrum – Keusches Ende einer kurzen Karriere)이고,<sup>25)</sup>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하늘의 GPS – 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침묵한다”(Himmliches GPS – Die Sterne lügen nicht. Sie schweigen)이다.<sup>26)</sup> 이런 제목들은 독자들에게 성경 본문과 시간적 거리를 좁히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익숙한 본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유도하려는 제목을 쓰기도 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꾸 꿈을 이야기하는 창세기 28장을 다룰 때 쓴 “천사가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 웃기는 꿈”(Brauchen Engel eine Leiter? – Komischer Traum)과 같은 제목이 그러하다.<sup>27)</sup>

또한, 독자들에게 익숙한 문구나 속담을 말놀이(Wordplay)로 조금 바꿔서 제목에 쓰기도 한다. 초대교회의 재산 공동소유를 다루는 사도행전 4장에서 말레사는 “그의 것이냐, 아니냐? – 여기서는 그것이 문제로다”(Seins oder nicht seins? – Das ist hier die Frage)를 제목으로 쓰는데,<sup>28)</sup> 이 제목은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말을 조금 수정하여 기교적으로 쓴 것이다(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 Sein oder nicht sein. Das ist die Frage.). 그리고 사도행전 7-8장에서 스테반의 순교를 다루는 대목에서는 “종교의 관용? 생각할 수 없음 – 사상은 (어디서나) 자유는 (아니다)”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성경원문연구」 34 (2014), 302-314.

25) A. Malessa, *111 Bibeltexte*, 44.

26) *Ibid.*, 126.

27) *Ibid.*, 36.

28) *Ibid.*, 206.

(Religionstoleranz? Undenkbar – Die Gedanken sind [nicht überall] frei)가 제목인데,<sup>29)</sup> 여기서 조금 바꿔서 쓴 “사상은 자유다”(Die Gedanken sind frei)라는 구호는 19세기 초반 독일에서 사상의 자유를 지향하며 널리 부르던 노래로 1842년에 호프만(A. H. Hoffmann)이 가사를 붙였다.<sup>30)</sup> 이 노래는 독일 사람들에게 정치적 압제나 표현의 자유가 있을 때 거둬 부르던 노래로 기억된다. 그러니 이런 제목은 사람들 눈에 잘 들어와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준다.

말레사는 제목뿐만 아니라, 본문을 설명하는 도입부에서도 현대의 일상 생활이나 논쟁거리가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말레사는 흥미롭게도 오늘날 카페에서 두 여성을 본 다른 여성들이 뒷담화하는 설정을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주 생생한 구어체로 시작한다.<sup>31)</sup>

저 사람들을 내가 어디선가 봤는데 ... 잠깐만 ... 너한테서 두 테이블 뒤에 있는 저 나이 많은 여자 말이야. 근데 뒤돌아보지는 마! 응! 아이고 저런!(Woher kenn ich die ... wart mal ... die ältere Dame zwei Tische hinter dir. Aber Dreh! Dich! Nicht! Um! Menschenskind!)

룻기의 이야기가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 생생하게 묘사되어, 독자들은 저절로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말레사는 여러 일상의 상황들을 설정하여 본문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려 하는데, 더러는 사회적으로 과장이 컸던 무거운 주제들로 시작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창세기 39장의 요셉 이야기는 당연히 2017년 미국의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 추문 폭로로 시작한 “미투”(#MeToo) 운동으로 말문을 연다.<sup>32)</sup> 또 다른 보기를 들자면, 사도행전 9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말레사는 아나니아의 관점에서 풀어가는데, 여기서 그는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의 피살 이야기로 시작한다.<sup>33)</sup> 카슈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칼럼니스트였는데, 평소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써왔다. 2017년 10월 2일에 그는 사우디아

29) Ibid., 208.

30) 참조, [https://de.wikipedia.org/wiki/Die\\_Gedanken\\_sind\\_frei](https://de.wikipedia.org/wiki/Die_Gedanken_sind_frei).

31) A. Malessa, *111 Bibeltexte*, 76.

32) Ibid., 44.

33) Ibid., 212.

라비아 영사관에 방문했다가 암살자 15명에게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말레사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로 박해자 사울을 맞으라는 신탁을 받은 아나니아의 심경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서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본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처럼 독자들의 흥미를 끌려고 노력한 말레사는 본문 해설을 짧은 단문으로 간략하고 정확하며, 쉽게 한다. 그러면서도 독자들에게 반드시 한번씩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애쓴다. 가령,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야기에서 말레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빚대어 인간의 본성을 “권력 공백, 고립에 대한 공포, 당혹감이 합쳐져서 대체-‘신상’이 생겨나게 한다”라고 말한다.<sup>34)</sup> 이 본문에 “언제나 돈과 권력과 섹스가 문제다”라는 제목을 단 말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름 아닌 현대인임을 넌지시 말해준다.

독일의 배경에서 언제나 충격적이면서도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우슈비츠 학살 사건인데, 말레사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사야 52-53장에서 이 문제를 꺼낸다.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해 대신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인용한다.

1941년 7월 29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독일 비밀경찰 요원들이 프란치스체크 가요브니스체크(Franciszek Gajowniszek)를 죽이려 하였다. 그는 아내와 자식이 있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어떤 폴란드인 사제가 소리쳤다. “대신 나를 죽이시오!” 그리하여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이었던 47세의 막시밀리안 콜베(Maximilian Kolbe)는 투옥되고, 8월 14일에 폐놀 주사를 맞고 죽었다. 프란치스체크 가요브니스체크는 살아남아서 1995년에 향년 94세로 죽었다.<sup>35)</sup>

이런 생생한 이야기로 말레사는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독자들이 더욱 또렷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한다.

말레사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 본문을 설명하며, 111개의 본문이라도 현대인이 알아두어야 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일찌감치 밝힌다.

34) Ibid., 68.

35) Ibid., 108.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을 “알아두어야 할 성경 본문 111”에서 자주 다루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은 개연성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는 마가복음 16장의 이야기에서 괴물처럼 무자비하게(in monströser Mitleidlosigkeit)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군인들의 모습과 그지없는 자비(rakikales Mitleiden)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킨다.<sup>37)</sup>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신앙의 핵심임을 다음 두 곳에서 분명히 밝힌다.

2,000년 동안 모든 문화권과 사회 계층에 속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듣고’, ‘체험하고’, ‘느꼈다’고 말해왔다. 그들의 증언을 몽똥그려서 믿을 수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은 외람되다고 여겨진다.”<sup>38)</sup>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여기는데도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것들은 많다. 전기, 엑스레이, 자기장, 전파, 그리고 항체 등을 보기로 들 수 있다. 사랑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sup>39)</sup>

결국 말레사의 성경 본문 해설은 단순히 현대인이 알아야 할 지식 가운데 하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성서공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대중적인 책을 선택한 까닭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대중에게 다가가기 바라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런 본문 해설에 이어 독자들은 매번 말레사가 고른 그림이나 사진을 발췌 본문과 함께 본다. 그림들 가운데는 아래 <그림 2>처럼 성경을 묘사한 성화들도 있다.<sup>40)</sup>

---

36) Ibid., 58.

37) Ibid., 186.

38) Ibid., 192.

39) Ibid., 196.

40) Ibid., 181.

<그림 2> 본문: 마가복음 14장



Und alsbald, während er noch redete, kam herzu Judas, einer von den Zwölfen, und mit ihm eine Schar mit Schwertern und mit Stangen, von den Hohenpriestern und Schriftgelehrten und Ältesten. Und der Verräter hatte ihnen ein Zeichen genannt und gesagt: »Welchen ich küssen werde, der ist's; den ergreift und führt ihn sicher ab.« Und als er kam, trat er alsbald zu ihm und sprach: »Rabbi!«, und küsste ihn. Die aber legten Hand an ihn und ergriffen ihn. Einer aber von denen, die dabeistanden, zog sein Schwert und schlug nach dem Knecht des Hohenpriesters und hieb ihm ein Ohr ab. Und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nen: »Seid ihr ausgezogen wie gegen einen Räuber mit Schwertern und mit Stangen, mich gefangen zu nehmen? Ich bin täglich bei euch im Tempel gewesen und habe gelehrt, und ihr habt mich nicht ergriffen. Aber so muss die Schrift erfüllt werden.« Da verließen ihn alle und flohen. Und ein junger Mann folgte ihm nach, der war mit einem Leinengewand bekleidet auf der bloßen Haut; und sie griffen nach ihm.



하지만 대부분은 본문과 관련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돕는 상징적인 사진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만 보기로 들자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온다. 여기서 잘 알려져 있듯이, 본문은 이새의 일곱 아들이 다 선택되지 않고, 목동으로 있던 막내 다윗이 선택된다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캐스팅” 기준<sup>41)</sup>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속마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말레사는 면접 상황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면접장의 사진을 보면서 본문에 비추어 스스로 돌아볼 공간을 마련

41) 이 단락의 제목이 “놀라운 캐스팅”(Überraschung bei Casting)이다.



해 준다.<sup>42)</sup>

<그림 3> 본문: 사무엘상 16장



Und der Herr sprach zu Samuel: »Ich will dich senden zu dem Bethlehemiter Isai; denn unter seinen Söhnen hab ich mir einen zum König ersehen.«  
Als sie nun kamen, sah er den Eliab an und dachte: »Fürwahr, da steht vor dem Herrn sein Gesalbter.« Aber der Herr sprach zu Samuel: »Sieh nicht an sein Aussehen und seinen hohen Wuchs: Ein Mensch sieht, was vor Augen ist; der Herr aber sieht das Herz an.« So ließ Isai seine sieben Söhne an Samuel vorübergehen; aber Samuel sprach zu Isai: »Der Herr hat keinen von ihnen erwähnt.« Und Samuel sprach zu Isai: »Sind das die Knaben alle?« Er aber sprach: »Es ist noch übrig der jüngste; und siehe, er hütet die Schafe.« Da sprach Samuel zu Isai: »Sende hin und lass ihn holen! Wir werden uns nicht niedersetzen, bis er hierhergekommen ist.« Da sandte er hin und ließ ihn holen. Und er war bräunlich, mit schönen Augen und von guter Gestalt. Und der Herr sprach: »Auf, salbe ihn, denn der ist's.« Da nahm Samuel sein Ölhorn und salbte ihn mitten unter seinen Brüdern. Und der Geist des Herrn geriet über David von dem Tag an und weiterhin. Samuel aber machte sich auf und ging nach Rama.

### 3.3. 평가

독일성서공회와 에몬스 출판사가 펴낸 말레사의 이 책은 성경을 접하지 않았거나,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자보다 영상이나 이미지에 더 익숙한 우리 문화에서 이른바 “MZ 세대”에게는 매번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더 생각할 공간을 주는

42) A. Malessa, 111 Bibeltexte, 79.

방식은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 서술도 딱딱한 문어체가 아니라, 일상의 대화를 연상하게 하면서도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독성도 뛰어나다. 제목에서부터 도입, 서술, 이미지 자료까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한 저자의 노고가 여실히 드러나는 책이기도 하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로, 발췌 본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과 본문의 편중은 이 책의 아쉬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아쉬움을 이 책의 접근 용이성과 간결함, 명료함이 다 덮는다.

#### 4. 나오는 말

안내와 지침 없이 성경을 읽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자칫 두 가지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먼저, 성경을 사람들이 외면할 위험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고대의 글인 성경이 사람들의 독서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버린다면 교회와 신학에는 당연히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이 성경 본문의 세계와 시간적·공간적 거리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 문맥과 상황 고려가 없는 성경 해석은 그 정체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학은 언제나 다시금 성경의 독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성경 본문에 접근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책은 매우 유의미하다. 바우어가 쓴 *Geldgeschichten der Bibel*은 성경의 세계는 물론, 오늘날에도 인간의 삶 거의 모든 영역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의 문제에 매우 유용한 실제적인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말레사가 쓴 *111 Bibeltexte, die man kennen muss*는 성경에 관심을 둔 독자가 어쩌면 가장 쉽게 성경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야기 중심의 본문 선택, 구어체의 쉽고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와 서술방식, 발췌 본문을 중심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진과 그림 등이 모든 것들이 21세기 온라인 글쓰기와 글읽기에 익숙한 세대들에게는 최적화된 방식으로 보인다. 물론 두 책 모두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라 각각 경제와 재정 전문가, 언론인이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성경 해석에 근본적인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이런 한계가 이 두 책의 장점을 가리지는 않는다.

한국의 배경에서도 성경의 전문가가 한국의 성경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접근성과 가독성과 현실성이 뛰어난 성경 해설서를 펴내고, 그것이 독자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는 날을 기대해 본다.<sup>43)</sup>

<주제어>(Keywords)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과 돈, 성경과 경제, 성경과 시각 매체.

reading the Bible, studying the Bible, the Bible and money, the Bible and economics, the Bible and visual media.

(투고 일자: 2023년 7월 28일, 심사 일자: 2023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10월 13일)

---

43) 이런 점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번역으로 이미 펴낸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과 조만간 나올 신구약 합본은 좋은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여기서 소개한 두 책의 내용과 같은 해설들이 곁들여져서, “MZ 세대”도 쉽사리 성경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설서, 또는 온라인 자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References)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BasisBibel: Die Kompakte. Altes und Neues Testame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1.

김정훈, “<서평> *Der Text des Alten Testaments. Neubearbeitung der Einführung in die Biblia Hebraica von Ernst Würthwein* (Alexander Achilles Fisch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성경원문연구」 39 (2016), 448-464.

유은결, “<서평> *BasisBibel: Neues Testament und Psalm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2)”, 「성경원문연구」 34 (2014), 302-314.

피셔, 알렉산더 아킬레스,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김정훈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Brueggemann, W., *Money and Possessions: Resources for the Use of Scripture in the Chur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6.

Dierken, J., *Gott und Geld: Ähnlichkeit um Widerstreit*, Tübingen: Mohr Siebeck, 2017.

Nickel-Schwäbisch, A., *Gott und Mammon: Biblische Perspektiven zum Umgang mit Geld-In Go(l)d we trust*,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2019.

[https://de.wikipedia.org/wiki/Andreas\\_Malessa](https://de.wikipedia.org/wiki/Andreas_Malessa).

[https://de.wikipedia.org/wiki/Dietrich\\_Bauer](https://de.wikipedia.org/wiki/Dietrich_Bauer).

[https://de.wikipedia.org/wiki/Die\\_Gedanken\\_sind\\_frei](https://de.wikipedia.org/wiki/Die_Gedanken_sind_frei).

<https://emons-verlag.de/verlage/emons/>.

<https://emons-verlag.de/buecher/111-orte/>.

<https://video.lifechannel.ch/share?key=4707A625-9536-402E-948DD55502E2EE86>.

<Abstract>

**Book Review – *Geldgeschichten der Bibel***  
**(D. Bau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6);**  
***111 Bibeltexte, die man kennen muss***  
**(A. Malessa, Stuttgart: emons;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21)**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Churches and theology should always strive to make it easier for readers of the Bible to access the biblical text, enter into its world, and hear the voice of God revealed within it. In this sense, the two books I have examined here are highly meaningful.

(1) *Geldgeschichten der Bibel* by Bauer provides a practical starting point for establishing the correct values regarding money, which has an undeniable influence on almost every aspect of human life, both in the world of the Bible and in modern times, through biblical exploration. Certainly, Bauer's ability to select and categorize Bible passages related to money, to provide economic and financial perspectives, and to offer practical introductions is unique to him. However, for those who desire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specific passages he selected, his explanations may seem too concise. Furthermore, the conclusions he asserts may even seem like clichés.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limitations of the author himself being unable to incorporate deeper theological reflections. Nevertheless, Bauer's journey through the money stories in the Bible from the perspective accessible to lay people or non-believers continues to shine brightly and remains relevant.

(2) *111 Bibeltexte, die man kennen muss* by Malessa can be evaluat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guide readers with an interest in the Bible, perhaps enabling them to access the world of the Bible most easily. This book employs a storytelling-focused selection of biblical passages, a simple, clear, and concise style in spoken language, as well as pictures and illustrations that help readers think more deeply about the excerpts, making it an optimized approach for the 21st-century generation familiar with online writing and reading. This book offers unparalleled accessibility for those who have not encountered the Bible before or are just beginning to explore it. The writing style is not stiff or formal

but rather evokes everyday conversation, making it concise and precise, contributing to its excellent readability. From the title to the introduction, the narrative, and visual materials, the author's efforts to stay grounded in everyday life are evident throughout the book.

Of course, it should be noted that both books were authored by experts in their respective fields, such as an economic and financial expert and a journalist, rather than biblical experts. Thus, they have inherent limitations in biblical interpretation. Nevertheless, these limitations do not overshadow the merits of these two books.